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4631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오세길 의원
찬 성 자 : 강정수, 설재영, 정능호, 이원배, 박순호, 김태민, 김동성, 양유환, 김명현, 함미정, 송용석, 정홍근, 김세원, 정인화, 최병순, 신진미 (16인)

1. 주 문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주민들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장 조성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유등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장동·도마동 권역은 파크골프 수요가 높지만 생활권 내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조성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과의 생활체육시설 격차도 큰 상황임. 이에 가장동 유등천변 옛 축구장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설치 가능 여부와 하천 관련 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 접근성이 높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4. 건의안: 별첨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

파크골프는 비교적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으며, 걷기와 운동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어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이웃과 교류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동 ~ 도마동 권역의 현실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동 ~ 도마동 권역은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으로, 주민들은 산책과 운동을 위해 유등천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없다.

반면 유등천 건너편 중구 태평동에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서구 만년동 유등천변에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결국 유등천을 중심으로 보면 인근 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장동 ~ 도마동 권역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생활체육 시설 이용에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대화 등 각종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주요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요구는 일부 동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생활밀착형 요구이자,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의 불균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이다.

특히 가장동 권역 유등천변에는 과거 생활 체육 공원으로 활용되었던 기존 축구장 부지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을 무리하게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 체육 공간을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등천은 국가하천인 만큼 홍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수 기능과 하천 환경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면적과 접근성, 하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홍수 시 통수능력, 환경적 영향 등을 관계기관이 함께 면밀히 조사하여 치수와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인근 태평동과 만년동에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설의 조성과 운영 사례를 참고한다면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단순히 운동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유등천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연계하여 걷기와 운동, 휴식과 주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체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주민들에게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답하고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서구는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서구는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유등천변의 기존 축구장 활용 부지를 파크골프장 우선 후보지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유등천의 치수 안전과 하천환경 보전을 전제로 파크골프장 조성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유등천 인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체육의 기회를 가장동 ~ 도마동 권역 주민들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가장동 유등천에 과거 체육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기존 축구장 부지가 있는 만큼, 이제는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왜 어려운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를 찾아야 할 때이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하여 가장동 유등천 축구장 활용 부지를 우선 검토하고,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